

조선 뒤흔든 천주교 박해 맞서 개혁과 구원을 원했던 민초의 삶



‘흑산’ 김훈 지음



한번, 소설 속 사공의 입을 빌려 “바다는 죽은 자리고, 배는 죽을 자리를 넘나드는 널빤지”라며 흑산도를 찾아가는 고난의 길을 설명한다. 김훈이 ‘남한산성’ 이후 4년 만에 역사 장편소설 ‘흑산’을 썼다. ‘흑산’을 읽는 즐거움은 한 가지 의문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호기심은 ‘흑산은 무엇을 뜻하는가’다. 이야기는 조선시대 신유박해(1801년)와 병인양요(1866년) 사이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많은 지식인과 백성의 삶에서 시작된다. 줄거리의 큰 축은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 생활과 그의 조카사위 황사영의 이야기. 또 양반 지식인, 배교자, 하급 관원, 마부, 어부, 노비 등 여러 계층의 삶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이들 인물은 모두 천주교 박해와 연결돼 있다. 소설에는 천주교의 교리를 버리지 않고 끝내 목숨을 바친 정약종과 황사영, 천주교를 버리고 현실의 벽을 받아들인 사람, 배교를 했지만 매를 많이 맞아 어이없이 죽은 사람 등이 등장한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도 이들 인물의 이야기가 동등한 위치에서 전개된다.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표면적 주인공인 정약전이 흑산도에 도착해 물고기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등장한다. 정약전은 이곳에서 한국 최초의 어류생태서 자산어보(慈山魚譜)를 쓴다.

“거기, 그렇게 있을 수 없는, 물과 하늘 사이에 흑산은 있었다.” 소설가 김훈은 자신의 소설에 등장하는 정약전의 입을 빌려 흑산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유배지에 도착한 정약전의 막막한 심정을 ‘거기, 그렇게 있을 수 없는’이라는 문장에 섬표표를 두 개나 찍어가면서 표현했다. 흑산도는 그런 공간이다. 섬도 산도 보이지 않는 먼 바다를 건너야 닿을 수 있는 곳. 김훈은 또

김훈은 이에 대해 “물고기를 들여다보며 가치 중립적 세계에 인간의 구원이 있을까 고민하는 유배된 선비의 삶과 꿈, 희망과 좌절을 그렸다. 그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느낀 기막힌 슬픔이 소설 군데군데에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연에서 전개된 웅장하고 장엄한 흐름이 정약전, 다산, 황사영, 순교자, 배교자 등이 꿈꿨던 도덕, 자유, 사랑이라는 목표와 만나는 미래를 써 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소설 속 ‘흑산’은 그런 곳이다. 미래에 대한 꿈은 꾸지만 처절한 슬픔을 간직한 현실 그 자체다. 김훈은 이 같은 생각을 담은 그림을 직접 그려 책 표지에 담았다. ‘가고가리’라고 이름 지은 그림 속 생명체에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하나로 조화돼 진화의 공간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등장인물도 놓쳐서는 안된다. 바다와 섬의 대자연이 봄·여름·가을·겨울처럼 순리대로 움직인다면 이들 인물들의 삶은 부조리와 슬픔만이 가득하다. 일례로 착취의 구조가 그러하다. 흑산의 땅은 훈련도감의 문전이며, 흑산진이 세금을 거둬 본감으로 보낸다. 또 배와 미역에 부과하는 세금은 흑산진의 봉인인 우수영으로 올라가고, 물고기 세금은 목민 관할인 나주목으로 올라간다. 민초들은 이 같은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심지어 어머니와 아이들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이 소설은 이들의 삶을 통해 ‘죽은 자리라던’ 바다가 세상 도처에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도 모른다. <학교책·1만38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현대문학의 흐름을 만나다

‘황순원 문학상’ ‘미당 문학상’ 윤성희의 지음



전통을 자랑하는 황순원문학상과 미당 문학상 수상 작품집이 나왔다. 11회를 맞은 황순원문학상 수상작은 윤성희의 ‘부메랑’, 주인공의 자서전 쓰기를 따라가며 실제와 다르게 굴절되는 삶의 조각들, 기억의 재편집 속에서 언뜻 언뜻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인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자선작 ‘고독의 의무’, ‘하다 만 말’, ‘구멍’과 문학평론가 정홍수의 작가론 ‘세계를 긍정하는 고독의 속도’, 강동호의 수상작가 인터뷰 등이 함께 실렸다. 후보작이었던 권여선의 ‘은반자’, 성석제의 ‘남방’, 조경란의 ‘학승의 생’, 한강의 ‘회복하는 인간’, 정미경

의 ‘과격 근무’, 김이설 ‘부고’ 등 8편이 실려 있다. 역시 11회째인 미당문학상 수상작은 이영광 시인의 ‘저녁은 모든 희망을’이다. ‘깊은 계곡 응답의 당신’, ‘나무는 간다’ 등 자선시 29편과 시인이 직접 쓴 연보 ‘나는 아직도 시를 쓴다’ 등 특집이 다양하다. 나희덕의 ‘명랑한 파랑’, 허수경의 ‘독일 남쪽 마을에서’, 이수명의 ‘창문이 비추고 있는 것’ 이면하의 ‘거리의 식사’ 등 최종 후보 9편의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중앙일보 문예중앙·1만3000원, 1만1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계사 흐름 바꾼 美 역대 대통령 의사 결정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토머스 J. 크라우프웰 지음



노예 해방 선언,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광대한 영토 확보, 노인 의료 보험제도 시행, 국립공원 지원, 200만 명 이상의 참전 군인들에게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대군인 원호법 시행, 파나마 운하 건설, 일본에 원자 폭탄 투하 명령, 닉슨의 중국 방문, 달 착륙 약속. 미국의 대통령이 내린 역사적인 결정들이다. 저자 토머스 J. 크라우프웰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17명이 내렸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28가지 의사 결정을 소개한다. 제목은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에 원자 폭탄 투하를

지시하며 내렸던 말(The buck stops here)이다. 미국이 150여년 동안 이 같은 결정적인 판단을 통해 현재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소개됐다. 대통령이 내린 판단은 미국의 힘을 세계에 떨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제2차 세계 대전의 승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또 트루먼이 내린 판단 중 ‘한국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는 것’보다 힘들었다는 그의 고백은 굉장한 흥미롭다. 그에게 원자폭탄은 ‘정의’라는 무기고에 들어 있던 하나의 강력한 무기였을 뿐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이오복스·1만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두 사람이 던지는 새로운 ‘유기농’

‘농부로부터’ 이태근 외 지음



50년 전만 해도 유기농이란 말이 없었다. 전통적으로 농사 짓던 모든 방식이 바로 유기농이었기 때문이다. ‘농부로부터’는 20년째 ‘흙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이태근과 박함 문화공간 ‘쌈지스페이스’를 탄생시킨 천호균이 주고 받은 농사와 기업,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씨는 토종종자, 유기농업 재배기술, 유기농 인증, 농산물 유통 등을 연구해온 유기농 전문가다. 또 천씨는

농촌디자인컨설팅 예비 사회적 기업 ‘쌈지농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다. 두 사람은 2011년 의기투합, 농산물 유통매장 ‘농부로부터’를 헤이리와 과주 출판단지, 한남동에 열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제각기 소중한 존재인 동시에 관계의 그물망에 있어 소중한 그물코가 된다”고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글리·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핵심사상과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다중과 제국’ 안토니오 네그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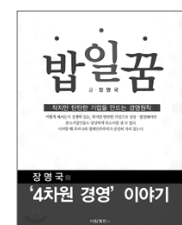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의 ‘다중과 제국’은 미래의 삶과 세계의 모습을 내다보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저자는 지구화, 전쟁, 민주주의, 주권, 저항권력 및 구성권력, 삶 정치, 삶 권력 등 자신의 핵심 사상과 개념들을 다섯 번의 강의와 인터뷰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는 전쟁에 대해 “전지구적 주권 형태인 ‘제국’은 더 이상 외부로 갖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내전일 뿐이다”고 규정한다. 최근 세계화 과정에 불거진 중동의 시위와 뉴욕 월 스트리트의 ‘99%’ 시위 등이 그 예다. 외부가 없는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저자는 ‘다중’이라 개념을 강조한다. 다중은 행동 능력으로 써서 내린 세계를 위한 최고의 희망을 제공하고 열정과 욕망을 가진 개인의 집합을 말한다. <갈무리·1만7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작지만 탄탄한 기업을 만드는 경영방식·철학

‘밥일꿈’ 장명국 지음



내일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장명국씨는 70~80년대 대학을 다닌 이들에게는 100만부 이상 팔린 ‘노동법 해설’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는 이후 다양한 조직의 경영을 맡으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성과를 올리며 경영인으로도 입지를 다졌다. 장명국씨가 쓴 ‘밥일꿈-작지만 탄탄한 기업을 만드는 경영 원칙’은 그가 터득한 경영방식과 철학을 소개한 글이다. 책에는 대학시절 어머니를 도와 딸기농사를 지을 때 규산질 비료를 사용해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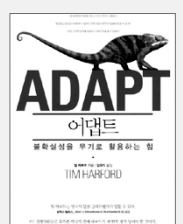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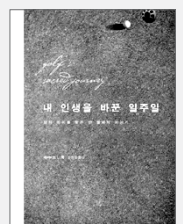
터 다양한 조직의 경영을 맡아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또 1970년대 인삼수출업, 1980년대 기술학원과 출판사 경영, 1993년 내일신문 창간과 독자경영, 1998년 외환위기 직후 YTN을 회생시킨 일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저자는 이들 사례에서 터득한 경영방식과 철학을 ‘4차원 경영’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했다. 적자를 내지 않고 빚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나가는 데 가장 기본 원칙으로 자본금이 적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창업 할 때, 위기에 처한 기업에 유용한 원칙이라고 풀이한다. <석탑출판·2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노란 개를 버리러=택시 트렁크 속의 노란 개를 버리러 가는 소년과 아버지의 여정을 다룬 김숨의 새 장편. 언뜻 보기에 따뜻하거나 슬픈 감성적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작가는 첫 문장부터 일반 독자의 기대를 깨면서 괴한 세계로 안내한다. 이야기는 부조리극 형태로 펼쳐지지만 작가가 그동안 선보인 독특한 이미지는 이번 소설에서도 두드러진다. 일 반적 이야기의 흐름을 전개하기 보다는 논리를 부정하는 부조리극에 가까운 작품. <문학동네·1만2000원>

▲명필-역사와 해학의 끝을 만나다=언론인 김남익씨가 전국의 사찰과 서원, 정자 등지에 있는 현판과 편액, 주련에 새겨진 명필의 붓 끝을 소개한 책. 삼각산 회계사에서 금정산 범아사까지, 고운 최치원에서 고암 이응노까지, 바위에 새기고 현판과 편액에 걸린 글씨의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또 명필 속에 숨어 있는 역사와 풍류, 해학, 문화를 들려준다. <서해문집·1만5900원>

▲그림 모은 남자=컬러 김생기씨가 지난 10년간 그림을 모았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움직이는 그림이 있으면 구입해 곁에 두고 매일 감상하며 작가의 성향과 성격을 짐작해보는 게 취미이자 행복이라고 설명한다. 또 컬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을 좋아해야 하고, 작가의 작품에 대한 폭넓은 공부도 뒤따라 한다고 귀



펼친다. <스타북스·1만5000원> ▲내 인생을 바꾼 일주일=스포츠 심리학자 소테이비드 쿡이 설 형식을 빌려 쓴 자기 계발서. 골프 유망주로 주목받던 큰 경기에서 참패로 무너진 젊은 골퍼 조니의 이야기로, 로버트 듀발 주연의 영화 ‘유포피아의 7일’로 제작되기도 했다. 흥미로운 건 프로골퍼 최경수가 출연한다는 점. 저자는 25년 넘게 100명 이상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들과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상담한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민음인·1만2500원>

▲어댑트=국내에서 50만부 이상 팔린 ‘경제학 콘서트’의 저자 팀 하포드의 신작.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해결 방법의 핵심은 ‘적응’하라는 것. 계획하기 보다는 오히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으로 일을 처리하며 익숙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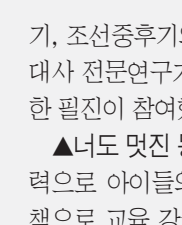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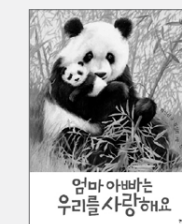
▲마음의 아이들=미국 카네기멜론대 로봇공학연구소 한스 모라베 교수가 지난 1988년 출간했고,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책. 저자는 2040년까지 사람처럼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계가 출현하며 이 로봇은 엄청난 속도로 인간의 능력을 추월해 2050년 이후에는 지구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사·1만8000원>



▲진짜꿈=프랑스 에피탈 국립미술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한 송희진씨가 그린 그림책으로 진짜 꿈을 찾아 떠난 서커스단의 꿈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창 곡예를 하던중 ‘진짜 꿈은 저런 걸 할 수 없다’는 꼬마 관객의 말을 듣고 속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 꿈이 겪는 다양한 이야기가 깊은 감명을 준다. <드림돌 어린이·1만500원>

▲나도 화가처럼 그려요=다양한 미술놀이를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는 책. 그리기, 판화찍기, 색칠하기, 종이오리기, 모형 만들기 등 다섯가지 카테고리 통해 아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명화에 등장하는 기법을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토요북·1만1000원>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해요=창비가 주최한 ‘제1회 좋은어린이책읽고 공모’에 당선돼 등단한 후 ‘내 짝꿍 최영대’ 등 히트작을 낸 채 인선씨의 작품이다. 판다, 코알라, 고니, 오랑우탄, 칠면조, 사자, 펄이갈매기, 표범 등 다양



한 동물들의 삶을 통해 부모 자식간의 정을 이야기한다. <살림어린이·1만원> ▲고전문학으로 떠나는 역사 여행 1~3 = ‘홍길동전’, ‘춘향가’, ‘음미어전가’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고전 문학작품들을 통해 그 시대 다채로운 생활상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봤다. 총 3권으로 나눠 고대부터 남북국 시대, 고려시대부터 조선조

기, 조선중후기와 구한말을 다루고 있으며 고대사 전문연구가 나희라씨 등 각 분야의 쟁쟁한 필진이 참여했다. <웅진주니어·각권 1만원> ▲너도 멋진 똥을 누고 싶지? =기발한 상상력으로 아이들의 배변 훈련을 도와주는 그림책으로 교육 강국 독일 유치원에서 실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똥을 누는 똥코끼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예상치 못한 난처한 상황 속에서 똥 하나로 똥똥지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배변에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살림어린이·1만원>

어린이 책꽂이